

세계 각국 소스, 순창서 맛본다

오는 10월 19일~21일
고추장마을서 박람회
31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올 가을 순창에서 세계발효소스를 한번에 만날 수 있다. 군은 '2018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를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발효소스박람회(이하 소스박람회)는 제13회 순창장류축제와 함께 진행해 박람회 참가시 장류축제까지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

'스마트 소스, 순창을 말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소스박람회는 순창의 발효산업과 미생물 산업을 연계해 순창장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실질적 박람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소스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소스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순창군 장류사업소 전화(063-650-5426)로 신청하거나 소스박람회 홈페이지(<http://sse.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이번 소스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인프라와 홍보 지원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소스박람회에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포함, 1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독특한 소스를 전시 판매하고 해외 수출 상담 등 다양한 산업화 성과를 거뒀다.



순창군은 '2018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를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개최한다.

최근 전통 장류를 토대로 다양한 유용미생물을 발굴하고 산업화에 발효커피 등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상품을 개발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군은 올해는 소스박람회의 산업성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미생물산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순창발효미생물산업전을 진행해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채로운 전시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해외 및 국내 기업이 판매와 전시를 하는 기업전시관이 눈길을 모으고, 바이어 B2B 상담도 진행된다.

세계발효소스, 순창군 미생물산업관, 제3회 순창 전통주 품평회 등 기획전시관도 독특한 주제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소스체험, 관내 농장 체험 등 다양

한 체험프로그램과 이해정세프 소스 토크쇼, 어린이공연 등 이벤트도 풍부하다.

여기에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대폭 늘렸다.

제15회 순창 고추장(소스)요리경연대회가 박람회장에서 이뤄져 전국의 참가자가 소스 개발에 참여하고, 소스 관련 체험이 진행되는 등 콘텐츠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황숙주 군수는 "세계각국의 소스를 만날 수 있는 순창세계소스박람회가 올 가을 순창에서 개최된다"면서 "순창만이 해낼 수 있는 독특한 박람회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인월면 '친절행정' 실천 앞장

모니터단·실명제 등 추진
빈틈없는 감동행정 최선

남원시 인월면(면장 진명현)이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이 감동해야 인월면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신념으로 친절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월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감동 행정은 ▲친절행정 모니터단 운영 ▲친절행정 실명제 ▲지역특성 맞춤형 친절·감동 행정으로, 직원들 스스로가 친절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항이다.

특히, 친절행정 모니터단은 9월 이장회의를 통해 인월면 26개 마을이장을 모니터단으로 위촉하고, 진명현 면장과 인월면 이장협의회장(서기성)의 친절행정 다짐 협약을 통해 인월면사무소 직원의 친절행정 추진과정을 모

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친절의 일상화를 위한 친절 3S운동(Stand-up, Smile, Say yes)을 매주 직원회의를 통해 실천하고, 민원인들이 직원의 이름 및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고 민원시간 단축을 위한 개인별 직인 명패 및 분장 업무를 책상 앞면에 부착하는 친절행정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네 방네 경사씨네! 어르신·신생아·다문화 가정 생일 축하하기' 계획을 수립해 고령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동행정 추진에도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진명현 면장은 "소통과 화합의 시작과 끝은 친절과 감동·행정 실천이라면서, 민원이 감동하는 친절, 소통, 섬김 행정을 통해 단 한명의 민민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서부지방산림청, 유아숲 교육 인기

서부지방산림청이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활동에 취약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유아 숲 교육'이 지역 유아 및 학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청사 뒤편에 남원 지역 최초의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을 시설하고, 남원 지역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에서의 체력놀이, 탐방활동 및 계절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017년 약 2만명의 수혜인원을 달성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유아숲체험원에 산림복지전문업체의 유아숲지도사를 위탁 배치했으며, 전문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유아 참여 기관들의 정기적인 예약제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현원 서부청장은 "춘향골 유아 숲체험원이 지역 유아들의 숲 교육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리산둘레길 숲길안내 및 지역국유림 내의 숲 해설을 통해 전 연령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와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남원공설시장에서 '남원 인녕 리액션 선포식'을 가졌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어깨동무'

남원사회단체, 지역 안녕 리액션 캠페인 선포

남원시민단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뭉쳤다.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와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회장 형창우)는 남원경찰인 9일 오전 8시 30분 남원공설시장에서 '남원 안녕 리액션(Re-Action) 선포식'을 가졌다.

순수 시민참여형 자원봉사인 안녕 리액션(Re-Action) 캠페인은, 안부 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직접 자원봉사로 행동하는 전국 공동행동이며,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곳곳의 자원봉사를 연결하고 영역

과 가치를 확장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남원공설시장에 나온 시민들과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라고 안부를 묻는 등 주변이 안전하지 서로 살펴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25일 추진 단계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갖고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어르신 폭력사고 예방, 발길 안전 귀가, 독거노인 안부 묻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먼저 인사하기 활동 등 사회이슈를 발굴·해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청년 창업농의 산실로 우뚝 선다

스마트팜 경영실습 농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

임실군이 청년창업 농업인 육성의 산실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2018년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팜 경영실습 농장 조성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만 40세 미만 과 영농경력 3년 이하의 귀농을 하기 위하여 교육중인 청년 영농 창업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경영실습 농장을 임대해

좁으므로 예비 귀농인들이 영농창업 하기 전과 시설(운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농 창업에 위한 기반을 마련,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안정적인 귀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에 확보된 12억원(국·도비 각 6억)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을 2,000㎡ 규모의 4개소 총 8,000㎡를 연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따라서 청년 영농창업인 경영실습 교육생 최대 12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기존에 귀농·귀촌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해형가족실습농장', '귀농플

랫폼',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임실군이 농촌의 고령화 대비 청년귀농인 유치 및 청년 창업 유도를 위한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실군은 청년창업인 및 예비 귀농인들의 영농창업의 산 교육장으로서 안정적인 귀농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이러한 청년 창업농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으로 청년창업하기 좋은 임실'과 더불어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